

●라테라노 성전봉헌축일 강론

육의 성전

라테라노 대성전에 대한 수식어는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 ‘로마의 4대 성전의 하나’, ‘모든 교황님들의 착좌식이 있었던 성전’ 등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300년의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 세워진 성전이라는 의미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끔찍하고도 잔인했던 로마 제국의 박해는 서기 313년 밀라노 관용령에 의해 끝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280?~337)가 교황 ‘성 멜키아데스’(310~314년 재임)에게 자신의 라테라노 궁전을 선물로 주며 함께 성전까지 지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이 같은 성전이 324년 ‘실베스테르 1세’(314~335년 재임) 교황에 의해 봉헌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313년 밀라노 관용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찾아온 지 불과 11년 만의 환희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도 있었습니 다. 1784년 천주교 신앙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1886년 한불조약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년의 세월 동안 길고 모진 박해 끝에 한국천주교회 첫 신앙의 모태인 명동(당시 명례방)에 명동 대성전이 봉헌된 것입니다.

1898년 명동 대성전이 봉헌되었으니, 신앙의 자유를 찾고 12년 만의 환희였던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대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고 보면 라테라노 대성전이나, 명동 대성전만 그러한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성전들이 모두 그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옛날 예제키엘 예언자의 예언대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허물라 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처음 건립할 때에는 마음가짐이 분명 달랐습니다.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성전 건립 기도> 중에는 이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온갖 욕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주님의 뜻을 소홀히 했나이다.”

처음 성전을 건립할 때엔 욕심과 오만이 없었습니다. 이는 영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립 후에는 다툼과 오만, 분열과 욕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육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허물라 하신 것입니다.

영의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보시며 불같이 역정을 내시고 성전을 허물라 하셨을 당시 유다인과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 하셨을 때는 더더욱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하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육의 성전이 아닌 영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강조합니다. 이를 사도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 16)

우리말에 ‘더럽다’라는 말은 ‘덜었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무엇인가가 남아 있을 때, 그 상태가 더럽다는 뜻이 됩니다. 깨끗이 설거지를 하였는데 설거지통에 오물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우리는 더럽다고 느낍니다.

내 마음 안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련과 욕망의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그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마음 역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영의 성전, 하느님의 성전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시 성전 건립 기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

저희가 힘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새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룩하여 사랑과 일치 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소서.”

라테라노 대성전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이며, 그리스도교의 으뜸 성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전은 소중하고 귀한 하느님의 집입니다. 성전 건립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같은 성전이 건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나눔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고귀한 성전에 걸맞는 영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탐욕과 착취의 장사꾼집이 아닌, 하느님 사랑과 그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찬 생명의 영혼들이 모이는 거룩한 집이 되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루카 19, 46)

배광하 신부 <춘천교구 갯세마니피정의집 원장>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드레아 : 매월 첫주일

- 11월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에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